

‘챔스 준우승’ 토트넘, 이유 있는 추락

EPL 3승 2무 3패... 20개 팀 중 9위
레비 회장, 선수 재계약에 '미적'
베스트 11 중 3명 계약 1년도 안남아

주급, 상위 구단들과 격차
선수들 사기 저하 주원인

지난해 유럽리그 유일 선수보강 '0'
올 시즌 수비 문제 지속 노출

골키퍼 요리스 공백, 경기력 영향
챔스리그·FA컵 일정 '힘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시즌 초 반 추락하고 있다.

지난 시즌 8라운드까지 6승 2패로 5위를 기록하던 리그 토트넘이 올시즌 8라운드까지 3승 2무 3패로 리그 20개 팀 중 9위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강등후보'로 꼽히는 브라이튼 엔 호브 엘비언에 0-3으로 패하는 수모까지 당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토트넘의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데 있다.

올시즌 드러난 토트넘의 문제는 사실 지난 시즌 중반부터 감지 됐다. 기적과 같은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으로 가려졌을 뿐이다.

현재 토트넘에는 불안요소가 너무 많다.

그 중 하나는 베스트 11 중 무려 3명이 계약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토비 알더베이럴트, 안베르통한이다. 토트넘은 이들 선수들을 잡을 의지도 없다. 여기에는 과거로 통하는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있다. 그는 구단과 구단의 합의가 끝나 도장만 찍으면 되는 계약에서 다시 흥정을 시도하는 협상방식으로 악평을 얻고 있다. 현재 레비 회장은 선수들의 나이를 지적하며 재계약을 미적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 임금도 전력약화의 한 원인이다. 토트넘의 주급은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리버풀 등 소위 빅팀과 격차가 크다. 이들 팀의 경우 주축 선수들의 경우 보통 15만파운드(2억1000만원)부터 시작하고 있다.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주급을 받는 선수는 해리케인과 올시즌 리옹에서 토트넘으로 팀을 옮긴 탕귀 은돔벨레다. 이들선수는 20만파운드(2억9200만원) 수준이다. 손흥민은 14만파운드(2억4000만원)로 팀내 3위다.

토트넘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크리안스티안 에릭센은 7만5000파운드(1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시즌 8경기 출전 3골을 넣은 '신예' 마커스 래쉬포드에게 30만파운드(4억 3000만원)를 지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토트넘은 올시즌 야심차게 여름 이적기간 리옹에서 '클럽 레코드'인 6500만 파운드(956억)로 탕귀 은돔벨레 등을 영입했다. 하지만 정작 선수 보강이 절실했던 홈딩 미드필더와 풀백의 영입은 없었다.

오히려 지난시즌 토트넘 오른쪽을 책임진

키에런 트리피어가 스페인으로 떠났다. 그 결과 올시즌 측면과 중원을 가리지 않고 수비문제가 노출됐다.

지난 시즌에는 유럽 4대 리그 팀들 중 유일하게 선수보강이 없었다.

그동안 토트넘은 팀 내에서 자리잡지 못한 선수들의 포텐이 터지면서 선수를 보강·영입한 것 같은 효과를 냈다. 손흥민과 무사시스코, 루카스 모우라가 대표적이다.

'명장' 포체티노 감독이지만 올해는 힘들어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팀의 중심을 잡아줄 주장 위고 요리스마저 부상으로 올해 복귀가 어렵다. 지난 브라이튼전에서 발생한 골키퍼 요리스의 팔꿈치 탈골 부상은 팀의 0-3 패배보다 더 뼈아팠다.

백업 키퍼인 파울로 가자니가는 리그 2경기 출전 5골을 허용, 요리스의 공백을 절감케했다.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토트넘은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FA컵 등 수많은 일정이 남아있다. 오는 겨울 이적시장에서 취약 포지션의 선수 보강이 없다면 힘든 행보가 예상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손흥민



절실했던 6년 ... 난세에 빛난 이창진

올 시즌 KIA 타이거즈의 중견수 자리를 맡은 이창진이 혼신의 힘을 다한 플레이로 데뷔 6년 차에 처음 규정 타석을 채우는 등 팀 야수진의 새로운 전력으로 떠올랐다. (KIA 타이거즈 제공)

지난해 KT서 KIA로 이적
성실함 장점... 코치진 기대주 꼽아
첫 시즌 완주... 0.270 타율·57득점
베테랑 부진 속 야수진 새 희망 부상

장 기억에 남는다.

4월 14일 SK와의 원정경기에서 2번 타자 겸 중견수로 나선 이창진은 1-1로 맞선 5회초 1사 1루에서 타석에 섰다. 앞선 타석에서 중견안타와 볼넷을 기록했던 이창진은 세 번째 타석에서는 SK 선발 문승원의 슬라이더를 좌중간으로 넘기며 승부를 뒤집었다. 경기가 4-2, KIA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창진의 프로 데뷔 홈런은 결승타가 됐다.

이창진은 "첫 홈런 쳤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너무 좋았다. 6년 만에 친 거라서 더 좋았다"고 홈런 순간을 떠올렸다.

이창진이 팬들에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건 '간절함'이었다.

매 순간 이창진은 최선을 다한 플레이로 눈길을 끌었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기회였기에 대충할 수 없었다는 게 이창진의 설명이다.

그는 "올 시즌 정말 간절하게 했던 것 같다. 1군에서 시합 뛰는 게 너무 소중했고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대충할 수 없었다"고 간절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다. 올 시즌 주로 중견수로 출전했지만 이창진에게는 낯선 자리였다. 처음 중견수로 뛰면서 시행착오도 겪었고, 팀 사정상 내야 훈련까지 겸하면서 내야수 테스트도 받았다. 첫 풀타임 시즌을 보내면서 시즌 중반에는 마음과 다른 타격에 마음고생도 했다.

이창진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그런 걸 보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한다"며 "타격에서 정확성을 키우고 수비에서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드려야 한다. 수비에서 실수가 많이 나왔다.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캠프 때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정말 올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내년 시즌에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절실함으로 '빛'을 본 KIA타이거즈 이창진의 2019시즌이 되었다.

KIA의 올 시즌은 극심한 '투고타저'로 표현할 수 있다. 야수 베테랑의 동반 부진으로 어려운 시즌 초반을 보냈고, 성공적으로 세대교체를 이룬 마운드와 달리 여전히 야수진의 격차는 크다.

하지만 난세에도 빛나는 별이 있었다.

지난 시즌 오준혁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KT위즈에서 KIA로 온 '이적생' 이창진이 올 시즌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눈길을 끌며 야수진의 새 희망으로 떠올랐다.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코치진은 이창진을 주목했다.

성실함을 무기로 공·수에서 성장세를 보인 이창진을 2019시즌의 기대주로 꼽은 것이다. 그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다.

이창진은 프로 데뷔 6년 차인 올 시즌 133경기에서 나와 처음 규정타석을 채웠다. 타율은 0.270, 프로 데뷔 홈런 포함 6개의 홈런을 기록했고 48타점, 57득점도 올렸다.

부상 없이 꾸준하게 제몫을 해내면서 시즌 완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창진은 "재미있는 한 해였다"며 "훌륭한 성적은 내지 못했지만 많이 발전했다.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팀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규정타석도 채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올 시즌을 돌아봤다.

많은 것을 이룬 올 시즌, 이창진에게는 '첫 홈런'의 순간이 가

벼랑 끝 LG '기사희생' 준PO 키움에 4-2 승리... 오늘 4차전

홈런에 올랐던 LG 트윈스가 홈런으로 준플레이오프 승부를 4차전으로 끌고 갔다.

LG가 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준플레이오프(준PO·5전 3승제) 3차전에서 4-2 승리를 거뒀다.

박병호의 끝내기 홈런과 추격의 투런에 2승을 내줬던 LG는 '벼랑 끝 승부'에서 채은성과 폐계로의 홈런으로 승리의 추를 기울였다.

초반 분위기는 키움이 잡았다.

1회초 우전 안타와 폭투로 2루로 향한 이정후가 박병호의 좌전안타 때 홈을 밟았다. 2회초 2사 1·2루에서는 서건창이 중견안타로 타점을 올렸다.

하지만 키움 선발 이승호가 2회말 볼넷 2개로 2사 1·2루에 몰렸고, 정주현의 중견안타로 1점을 내줬다.

앞선 1·2차전에서 '한방'에 올랐던 LG가 4회말 홈런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1사에서 채은성이 이승호의 2구째 141km짜리 직구를 잡아당겨 동점 홈런을 만들었다.

2-2로 맞선 7회말, LG에 행운이 따랐다. 선두타자 정주현의 타구가 우익수 키를 넘어 떨어졌다. 우익수 샌즈가 펜스 맞고 튀어나온 공을 잡으려다 놓쳤고, 정주현이 3루까지 향했다. 그리고 오지환의 희생플라이로 LG가 역전에 성공했다. 8회에는 선두타자 폐계로가 우측 담장을 넘기면서 4-2를 만들었다.

LG는 다시 한번 위기의 9회를 보냈다. 마무리 고우석이 볼넷과 몸에 맞는 볼, 희생번트로 1사 2·3루에 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가 실점 없이 경기가 4-2, LG의 승리로 끝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GA 최고 난코스 '베스페이지 블랙' 선수들 평균타수 파 기준 2.543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8-2019시즌 가장 고난도 코스는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이 열린 미국 뉴욕주 파밍데일의 베스페이지 스테이트 파크 블랙 코스로 집계됐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워크는 9일(한국시간) 2018-2019시즌 PGA 투어 대회가 열린 49개 코스의 경기 결과를 분석해 난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PGA 챔피언십이 열린 베스페이지 블랙 코스는 파70에 7천459야드로 진행됐는데 선수들의 평균 타수는 파 기준으로 2.543타가 나왔다.

출전한 선수들이 평균 72.5타 정도를 쳤다는 것이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 브룩스 켈카(미국)의 최종합계는 8언더파였다.

베스페이지 블랙 코스 1번 홀 시작 지점 뒤에는 '경고문. 이 코스는 매우 어려운 곳이라 기술이 좋은 골퍼들만 플레이할 것을 권고함'이라는 공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코스는 US오픈 열린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로 선수들은 이곳에서 파 기준 1.353타를 더 쳤다.

3위부터 5위까지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HSBC 챔피언십이 열린 중국 서안 인터내셔널 골프클럽(1.256타), 브리티시오픈이 열린 로열 포트리스(1.175타), 혼다 클래식 개최 장소인 PGA 내셔널(1.016타) 순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쉬운 코스로는 데저트 클래식이 열린 라킨타CC가 1위에 올랐다. 이곳에서는 선수들이 파 기준으로 평균 3.282타를 덜 친 것으로 집계됐다. 역시 같은 대회의 코스 가운데 하나인 니콜라우스 토너먼트 코스가 -2.942타로 2위, 3위는 CIMB 클래식이 열린 말레이시아 TPC 쿠알라룸푸르로 -2.599타가 나왔다.

/연합뉴스